

#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 성과 9건 선정

### 과기부 '2021 국가연구개발 우수 100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 성과 9건이 '2021 국가연구개발 우수 성과 100선'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한 국가 연구개발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2006

년부터 매년 우수성과 100선을 선정해 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 효과(연구개발 완성도, 기술수준 향상 효과 등)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경제 활성화 효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를 고려해 2020년에 창출된 우수성과

100선을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5대 기술 분야 중 기계·소재 분야에서 1건, 생명·해양 분야에서 3건(농식품부 총 4건), 농촌진흥청은 생명·해양 분야에서 5건의 우수성과를 기록했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27조원) 중 농림식품 연구개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5%(1조)가량인 점을 고려할 때 우수성과 100선 중 9건이 선정된 것은

돌보이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중구 농업생명정책관은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자에게는 우수성과 100선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3년간 R&D 과제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농식품 현장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

## 중기·소상공인 상생협력 공로 '인정' | 국민연금, 동반성장 유공 국무총리 표창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2021년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동반성장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11월 첫 주를 동반성장 주간으로 지정하고, 동반성장 우수단체와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다.

공단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상생결제제도로 지난해 약 5억4,000여만 원을 이용해 2019년 대비 이용액이 약 6배 증가했으며, 공사대금 전액을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해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 위기 극복에 동참했다.

'상생결제제도'는 업체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도이며, '하도급지킴이'는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중소기업과 이익을 나눠 갖는 성과공유 및 협력 이익공유제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은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2021년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동반성장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협력사의 안전사고 Zero 달성 인센티브 지급 등 총 67건 약 9,000만원의 이익을 공유해 지난해 준정부기관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4월부터는 공단 사옥에 입주한 29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약 21억 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등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공단은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을 위해서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익산 성당포구마을을 '마을자치연금 제1호 마을로' 선정하고, 올해 8월부터 28명의 어르신께 매월 1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상생 협약을 맺고 전국 단위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김용진 이사장은 "앞으로도 자발적 상생협력 사업을 강화하여 상생과 공존의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

## 도내 기업들의 수출 길잡이 역할 '톡톡'

### 전북도 수출통합지원센터 지난 9개월간 500여건 상담 통상전문가 컨설팅도 진행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코로나19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의 수출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동안 수출지원사업이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도내 기업들이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일일이 방문해야만 했다. 또한 수출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 어느 곳으로 문의를 해야 할지 혼란을 느끼거나 상담이 진행되더라도 여러 기관을 걸쳐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지난 2월,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센터가 출범하였으며, 도내 기업들에게 전라북도 도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도내 출연기관 및 중앙기관 등 수출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300여 개의 수출지원 사업을 통합 안내하고 있다. 또한, 센터에 수출전문 상담인



력이 상주하며 기업들이 언제든 수출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로 지난 9개월 동안 센터에서는 수출을 하고 있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약 500여 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은 센터 대표전화로 통한 전화상담, 센터 내방상담, 기업 방문상담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수가 수출지원사업 안내 및 기타 수출 관련 상담들이 그 뒤를 이었다.

더 나아가, 매주 수요일에는 '통상전문가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도내 기

업들이 쉽게 해결하기 힘들었던 수출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도내 기업들의 좋은 효용을 이끌어 내고 있다.

도내 기업들은 변리사, 국제전문회사, 관세사 인증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그동안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던 법률, 지식재산권, 위생허가, 라벨링, FDA, 계약 등 전문 분야에 대한 맞춤형 무료상담을 매주 수요일마다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금 전 세계는 위드 코로나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 경제활동 재개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우리 도는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기업들의 해외관 로개척을 온·오프라인으로 적극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출 관련 도움이 필요한 도내 기업은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센터 대표 전화(☎1644-7155)로 문의 또는 센터 내로 방문하여 상담, 수출철차 상담 등 기타 수출 관련 상담들이 그 뒤를 이었다. /김윤성 기자

## aT 김춘진 사장, 한국배 수출 확대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김춘진 사장은 3일 경기도 평택시(시장 정장선)를 찾아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저탄소 식생활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협업과 외식업 체 대상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동참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방안 모색 등 ESG경영 실천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어 천안시 서북구 소재 국내 최대 배 수출단지인 천안배원예농협(조합



장 박성규)을 방문하여 미국 배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신선배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지난 7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물류대란에 국적 선사인 HMM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선배 최대 수출국인 미국 서안 노선에 농수산식품 전용 선박을 운영하여 수출길 확보와 농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다방면의 수출 지원을 통해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 몰카 가장 유튜브 콘텐츠로 차별화

### LX, '낄낄상회'와 협업 MX세대 겨냥 홍보 '주목'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가 인플루언서와 컬러배리어션을 통한 MZ세대를 겨냥한 홍보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LX공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인 웹툰작가 양영수와 지적재조사 홍보 웹툰을 제작한 데 이어, 개그콘서트 출신 낄낄상회와의 협업을 통해 몰래카메라를 가장한 유튜브 콘텐츠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LX공사는 '실어증입니다. 일하기 싫어증 등 직장생활의 애환을 위로 있는 일러스트로 그린 양영수 작가와 지적재조사 SNS홍보 웹툰 제작에 이어 전국 400여 개 지하철 스크린에 캠페인을 송출하는 등 차별화된 홍보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몰카 전문 유튜브 낄낄상회'는 스님과 목사님 컨셉으로 땅에 대한 소유권 논쟁을 통해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을 알리는 설정으로, 공익적 내용에 재미와 웃음을

더한 영상으로 업로드 이를 만에 조회수 50만을 앞두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마다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특히 이번 협업은 댓글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이다. '아, 이게 광고라고? 역시 낄낄 광고인 듯 광고가 아닌 듯 스머트네 ㅋㅋ', '제작사 무료인 건 참 들었는데, 이거 진짜 예요!',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느낌이에요!' 등 호평이 잇따르고 있다.

LX공사는 하반기에도 버즈의 보컬 민경훈이 함께하는 '주크박스', 경제 유튜브 '슈카월드' 전석재, 과학 유튜브 '쿠기뉴스' 이효중 등과의 협업을 통해 LX공사 핵심 사업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LX공사의 유튜브 LXTV는 유카, 크리스티안 등 외국인 셀럽들과 한국 여행기로 인상적인 재미를 보여준 '콘텐츠로드', 개그우먼 이은지의 부캐 길은지 등이 출연한 'LX에게 물어봐' 등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김윤성 기자



무주군은 3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와 '농촌협약 사업추진과 지역발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농촌협약 사업 '가속 페달'

### 농어촌공 전북-무주군 지역발전 협력 구축 '맞손'

무주군이 지역발전을 가속화한 '농촌협약'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무주군은 3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와 '농촌협약 사업추진과 지역발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농촌협약 공모를 위해 2020년 9월부터 농촌공간 전략 계획(20년)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5년)을 수립해 올해 6월에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에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사업추진 뿐만 아니라 무주군 농촌 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촌의 가치 증진 및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참석한 양정희 전북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무주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무주=전문선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다"라며 "농촌협약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농어촌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문제를 해결할 기쁨에 단비 같은 역할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군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농촌협약 사업계획에 대해 보완해 가고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농촌협약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발전 방향에 따라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무주군이 정부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최대 국비 300억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윤성 기자·무주=전문선 기자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수칙 준수가 지름길